기업 경영 정보

□ 일본의 연휴 경제학[1)]

- 최근 일본에서는 대형 연휴에 의한 경제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  - ·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장기간의 휴가가 오락 관련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믿어 왔음
  - · 반면 휴가 집중에 따른 기업 경영 활동의 마이너스 측면이나 소비 측면의 경제적 부작용을 지적한 경우는 드물었음
  - · 최근 일본의 소비와 비즈니스 현장 곳곳에서는 전국이 일제 휴가에 들어가는 대형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

- 연휴의 집중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
  - · 일본의 황금 연휴는 연말연시, 추석에 해당하는 음력 7월 보름, 그리고 골든 위크 등 3회가 있으며, 이때에는 어김없는 교통 혼잡을 겪게 됨
  - ·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교통 체증으로 일본 국민 1인당 연간 42시간, 국가는 국내총생산의 2.4%에 달하는 연간 12조 엔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· 연휴 기간 중 국내외 항공·숙박료가 2 3배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, 1월, 5월, 8월에 편중된 관광산업의 불균형한 매출 구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

-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애로점
  - ·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에도 세계 판매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예정 물량의 2 3배를 발주할 수도 있음
  - · 일본 기업들이 아무리 정확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휴 중 해외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

---

1) 日本經濟新聞(2002년 5월 2 4일자 종합)

- 연휴를 분산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자들의 발상 전환이 요구됨
  - 기업들의 경우 평일 전력 요금보다 무려 50%나 저렴한 휴일이나 야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경비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음
  - 제철소들은 연휴 1주전에 자체 공장의 정비를 위해 미리 연휴를 사용하고 전력비가 적게 들어가는 연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비 절감을 이룰 수 있음
  -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은 연휴의 분산에 동참하기 위해 인파가 많이 몰리는 1월과 8월에는 국내외 여행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
  - 여행사들도 주로 6 7월과 9 12월을 중심으로 실버 계층을 겨냥한 상품 패키지들은 기획함으로써 자사의 연간 매출에도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함

- 연휴의 분산을 위해 일본 기업들의 휴가나 일하는 방식도 개혁되어야 함
  - 일본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5일로 미국(10일)이나 영국(8일)보다 많은 반면, 유급 휴가는 9일로 독일(31일) 등 선진 5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
  - 실제 일본 회사원들은 부족한 휴가를 정월이나 5월의 골든 위크, 음력 7월 보름 등의 법정 연휴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임
  - 또한, Top-down 식의 명령체계가 아닌 모두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모두 함께 일을 해야하는 일본식 기업 구조가 연휴의 분산을 가로막는 것임

-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휴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
  - 모두 똑같이 일하고 함께 쉬는 일본의 대형 연휴제도는 전후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음
  - 하지만,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의 제도는 좀더 효율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휴의 분산이나 다양화, 그리고 기업 관행의 개혁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031-288-7348)